

# 가족자원관리학 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와 평가\*

## The Contribution and Evaluation to the Studies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가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부교수 정영금

Dept. of Consumer & Housing,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ociate Prof.: Jeong, Young Keum

###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V. 미래를 향한 방향 |
| II. 연구범위와 방법      | VI. 결론       |
| III. 연구경향의 분석     | 참고문헌         |
| IV.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rend of studies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the contribution to family and society through the studi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363 articles published in 4 journals relating to family resource management for 2 decades.

The contents are 1) an analysis to the trend of the studies classified by subject and period, 2) an analysis to the ratio and trend of practical studies, 3) a critic to the problems which this field of studies contains of, 4)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enlargement of the information and practical education, enrichment of education through the field study, development of methods and contents for the study.

### I. 문제의 제기

가정관리학은 1983년에 가정관리학회지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학문적인 성과가 축적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초에는 가정관리학과가 약 30여개 대학에 설치되는(이기영 외, 1993) 등 짧은 역사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특히 연구측면에서 보면, 대한가정학회지를 중심으로 할 때 의생활과 식생활 관련 연구에 비해 가정관리학 분야 연구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양적인 확대가 두드러진다(황덕순 외, 1995).

그러나 80년대부터 대학 졸업자들의 사회진출에

\* 이 논문은 한국가정관리학회 199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수정·보완후 사독을 거쳤음.

대한 욕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90년대부터는 대학의 개방화와 자율화 추세가 이에 가세하면서, 가정관리학은 계속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여 왔다. 즉, 가정관리학의 궁극적인 목표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명칭의 선정과 전공자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가족자원관리학 역시 연구논문들은 많이 발표되었으나 연구결과를 활용하거나 전공자의 진출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기타의 하위영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가정관리학과 안에서 여러 전공분야와 통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전문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전공자가 중등교사로 진출하는 것 외에는 마땅히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진출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자원관리학도 전문화를 꾀하는 동시에 전공자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왔다. 그 결과, 가족자원관리학 분야는 공공가정관리사와 가정복지사를 전공학생의 사회적 진출 분야로 보고 이 분야의 사회적 수요와 해당업무에 필요한 능력, 그리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의 검토와 함께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자원관리학 분야는 연구의 축적과 전공자의 진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자원관리학이 가족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구성과들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반영되어 활용되고 있는가, 또 연구결과를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가 등에 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학회 창립후 지난 20년간의 가족자원관리학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해 보고, 특히 실용학문으로서의 사회적 기여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전공자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가되고 이에 부응하여 학회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대적인 변화를 학문적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검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생각해 보고 재정립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 II. 연구범위와 방법

### 1. 연구대상 학회지 및 논문의 범위

가족자원관리학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이 갖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데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분야이다. 이 때, 가정이라 함은 개인가정과 공공가정을 포함하며, 자원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포함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자원관리는 종래의 가정관리학 중에서 연구분야가 보다 구체화된 학문영역들이 독립되고 남은 분야를 총칭하게 됨으로써 연구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연구영역이나 주제면에서 소비자학이나 가족관계학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특히, 경제적 자원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족자원관리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가계경제분야는 소비자학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주부의 역할이나 스트레스 등의 주제는 가족관계학과 공유되는 분야이다.

물론, 가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들이 하위학문영역 별로 완전히 구분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위학문이나 전체학문의 체계나 영역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본 연구는 가정관리학의 체계화나 분류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연구영역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경제분야를 제외한 협의의 가정관리분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나 역할갈등 등의 주제를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다룬 논문들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때 연구자의 전공분야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 20년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므로, 가정관리학회지 총 42권(창간호-17권 2호), 대한가정학회지 총 97권(18권 1호-37권 6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총 5권, 소비자학연구 총 23권(창간호-10권 3호) 등 전체 167권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학회지의 분석대상기간과 논문편수는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의 학회지명과 기간 및 논문 편수

학회지명	발간학회	분석기간(년,월/권,호)	논문 편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	1983.1~1999.6 (창간호-17권2호)	164
대한가정학회지	대한가정학회	1980.1~1999.6 (18권1호-37권6호)	167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97.1~1999.6 (창간호-3권1호)	29
소비자학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990.1~1999.6 (창간호-10권 2호)	3
계			363

## 2. 연구주제의 분류

가족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는 가정관리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90년대에 부산하게 이루어졌던 학과명칭변경이나 자격증개발 움직임에 밀려 학문의 영역 및 분류규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학 전체의 논문내용분석에 이용된 ‘관리분야’<sup>1)</sup>의 하위유목(황덕순 외, 1995, 23)과 가정관리학과 교과모형개발에 이용된 ‘관리분야’<sup>2)</sup>의 교과목(이기영 외, 1993, 222)을 기초로 재분류하였다.

연구주제는 〈표 2〉와 같이 관리이론, 관리대상, 관리실제로 대별하였다. 첫째로, 관리이론은 가족자원의 관리체계 및 관리과정, 관리를 통해 산출된 생활의 질과 만족도, 가족자원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가정생산 및 가족경제학<sup>3)</sup>, 생활설계 및 실태로 다시 구분하였다. 둘째로, 관리대상은 가족자원을 대상별로 구분하여 관리이론을 적용한 주제들로서, 가사노동, 시간자원, 가정기기, 여가로 세분하였다. 셋째로, 관리실제는 이러한 연구들이 직업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인 영역으로서, 축적된 연구수는 적지만 자격증별로 구분하였다.

하위유목에 포함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관리체계 및 과정에는 체계이론, 관리행동, 관리과정, 관리능력, 관리유형, 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 생활의 질과 만족도에는 이것을 종속변수로 한 모든 연구가 포함된다. 가정생산 및 가족경제학에서는 가족전체의 자원배분이나 자원대체,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의 시간배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생활설계 및 실태에는 전반적인 생활실태와 이에 대한 설계와 교육 등이 포함된다.

구분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만을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자원에, 가사노동과 시장노동간의 시간배분은 가정생산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사노동시간을 기초로 한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는 가사노동에 포함시켰다. 또 시간관리전략이나 취업주부의 시간갈등은 주된 노동을 선택한 이후에 나타나는 자원의 대체이므로 시간자원에 포함시켰다.

한편 여가시간과 행동은 시간자원과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중복주제를 연결시킨 경우, 예를 들면 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에는 종속변수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천적 연구를 따로 분류하여 전체 연구 중 실천적 연구의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연구의 사회적인 기여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

1) 여기에서의 관리분야는 가정경제와 분리되었다.

2) 여기에서의 관리는 경제와 분리되었다.

3) 이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공통된 용어가 규정되지 않아 가족경제학으로 명명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표 2〉가족자원관리분야의 연구주제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주제
관리이론 (이론)	관리체계 및 과정	관리체계, 행동, 과정, 능력, 유형, 의사결정 등
	가정생산 및 가족경제	가정생산이론 및 활동, 시간배분, 취업결정등
	생활의 질 및 만족도	생활의 질, 만족도, 복지감, 지표 등
	생활설계 및 실태	생활설계, 전반적인 실태, 생활교육 등
관리대상 (적용)	가사노동	태도, 만족도, 의미, 인식, 참여, 가치평가, 사회화 정책 등
	시간자원	노동시간, 생활시간, 시간제약, 시간 및 역할관리전략 등
	가정기기	전기기기, 세탁 등
	여가	여가시간, 활동, 만족, 정책 등
관리실제 (활용)	공공가정	공공가정관리사
	가정복지사	가정복지사, 복지관 운영 등
	가족기업 및 재택근무	가족기업, 재택근무, SOHO 등
기 타		생활사, 학문 및 학과명칭

구의 실천적 성격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소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유영주 외(1996)의 견해에 따르면 실천적 연구란 첫째, 연구에 있어서 가치추구적, 비판적 관점의 허용, 둘째, 연구결과의 사회화라는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자 5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에 기술된 기준 중 후자인 연구 성과의 사회화를 실천적 연구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연구의 성과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간주되는 경우에 실천적인 연구로 보았다(박명희, 1999);

- 1) 연구의 성과가 일반가정에 적절한 정보와 조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
- 2) 가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여러 정책과 기업활동에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자원관리학 연구결과의 사회적 기여를 기술하면, 주부들의 가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관리과정이나 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가사노동정책이나 가족정책 등 정부의 정

책형성에 기여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기업을 비롯한 사회기관과의 관계를 통해 현장성을 제고하였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학문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구결과물들을 분류해 보면 대체적으로 연구주제별로 차이가 있어, 생활설계나 가사노동분야, 가정기기, 공공가정, 가정복지사 등에 관한 연구들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는 공동연구자들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여기에 포함된 논문들의 목록을 전체부록에서 제시함으로써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한다.

### III. 연구경향의 분석

#### 1. 전체연구의 주제별, 시대별 경향

학회지에 발표된 가족자원관리분야의 연구는 1980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총 363편으로서, 20년간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축적되었다. 특히 1995년

부터 학회지의 발간회수가 늘어나면서 발표논문수가 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표 3>에 나타나 바와 같이, 학회지별로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에 164편, 대한가정학회지에 167편이 발표되어 두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 1997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한국가족자원관리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이 7.9%였고 소비자학회지에 3편이 발표되었다.

또 각 학회지에 발표된 주제를 볼 때, 모든 영역의 연구들이 각 학회지에 골고루 발표됨으로써, 학회지별로 차별화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비율상으로 본다면, 관리실제영역의 연구들이 한국가족자원관리학회지에 많이 발표되었으나 이것은 학회지의 발간시기와 연구시기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은 가족경제학에 국한되었다.

대분류에 속하는 주제별로 살펴보면, 관리이론에 관한 논문이 전체의 47.3%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관리대상별 논문이 전체의 43.5%를

차지하여 두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비슷했음을 알 수 있다. 관리대상이 자원별로 구분되어 여러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에 비한다면 관리이론에 관한 연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이것은 특히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가 종속변수로서 각종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학문적 연구 결과를 실제 사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관리실제에 관한 논문은 전체의 6.0%에 불과하여, 이제까지 직업개발에 관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소분류상의 주제별로 분석해보면, 우선 관리체계 및 과정에 관한 연구가 전체의 18.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이루어졌으며, 이와 비슷한 비율로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가 18.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간자원에 관한 연구와 생활의 질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각각 15.9%와 15.7%를 차지하였다.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가족자원관리학의 전체적인 연구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볼 때, 80년 초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된

<표 3> 주제별, 학회지별 논문게재편수

중분류	소분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자학연구	합계(%)
관리이론	관리체계 및 과정	34	30	3	-	67 (18.4)
	가정생산 및 가족경제	11	11	-	3	25 (6.8)
	생활의 질 및 만족도	28	23	6	-	57 (15.7)
	생활설계 및 실태	6	13	4	-	23 (6.3)
	소 계	79	77	13	3	172 (47.3)
관리대상	가 사 노 동	26	34	6	-	66 (18.1)
	시 간 자 원	23	35	-	-	58 (15.9)
	가 정 기 기	11	7	-	-	18 (4.9)
	여 가	9	4	3	-	16 (4.4)
	소 계	69	80	9	-	158 (43.5)
관리실제 (활용)	공 공 가 정	3	2	4	-	9 (2.4)
	가정복지사	5	-	-	-	5 (1.3)
	가족기업 및 재택근무	2	3	3	-	8 (2.2)
	소 계	10	5	7	-	22 (6.0)
기 타		6	5	-	-	11 (3.0)
합 계		164(45.1)	167(46.0)	29 (7.9)	3 (0.8)	363 (100)

분야는 관리체계, 생활의 질, 가사노동과 시간자원 등의 분야이다.

관리체계 및 관리과정은 행동, 능력, 의사결정 등을 아우르면서 특별한 변화없이 꾸준히 연구되었고, 생활의 질 및 만족도는 시대별로 관심이 증가하는 영역과 관련되면서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기에는 관리능력이나 의사결정 등의 영향력이 연구되었고, 90년대에는 가사노동이나 여가의 영향력이 연구되었다.

가사노동분야의 연구는 8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연구초기에는 가사노동 태도 및 만족도, 시간, 가치 등이 골고루 연구되다가 90년대에 들어서 가사노동시간과 가치 및 평가에 관한 연구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시간자원에 관한 연구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만 초점을 맞추던 초기의 경향에서 벗어나,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전체 생활시간이나 전체 가족원의 가사노동시간으로 연구영역이 확대되었다. 뿐만 아니라, 90년대에 들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취업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전략이나 정책적 지원

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한편, 가사노동시간을 통한 가정생산이론이나 시간배분이론이 90년대 초부터 보다 활발히 도입되면서, 이러한 이론들이 관리이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가족자원인 노동이나 시간을 종합적으로 배분한다는 점에서 볼 때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체계적인 분석과 병행하여 자원별 관리는 여전히 수행되고 있으므로 연구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설계 및 실태에 관한 연구들도 90년대 후반에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관리체계 및 과정에 관한 연구들과 유사하지만, 전통적인 이론과는 달리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생활을 설계하며 교육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가정기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80년대에 기기의 관리나 열효율, 에너지 절약 등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90년대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기기에 대한 관심은 광범

〈표 4〉 주제별, 시대별 논문게재편수

중분류	소분류	80~84	85~89	90~94	95~99	합 계(%)
관리이론	관리체계 및 과정	13	8	22	24	67 (18.4)
	가정생산 및 가족경제	-	1	6	18	25 (6.8)
	생활의 질 및 만족도	5	6	16	30	57 (15.7)
	생활설계 및 실태	-	2	3	18	23 (6.3)
	소 계	18	17	47	90	172 (47.3)
관리대상	가 사 노 동	5	11	18	32	66 (18.1)
	시 간 자 원	4	4	24	26	58 (15.9)
	가 정 기 기	9	4	2	3	18 (4.9)
	여 가	-	2	4	10	16 (4.4)
	소 계	18	21	48	71	158 (43.5)
관리실제 (활용)	공 공 가 정	-	-	1	8	9 (2.4)
	가정복지사	-	-	-	5	5 (1.3)
	가족기업 및 재택근무	-	-	-	8	8 (2.2)
	소 계	-	-	1	21	22 (6.0)
기 타	-	1	3	7	11 (3.0)	
합 계	36 (9.9)	39 (10.7)	99 (27.2)	189(52.0)	363 (100)	

위한 환경의식이나 자원절약에 대한 연구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가에 대한 연구는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여가시간이나 행동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학문의 전문화추세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면서 가정관리학과의 방향이나 명칭변경, 자격증개발 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서선희 외, 1995; 이연숙 외, 1994; 이기영 외, 1993). 이러한 경향은 9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자격증개발이나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가정관리사나 가정복지사의 추진을 위한 논문들과 새로운 연구영역으로서의 가족기업에 관한 논문들이 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 2. 실천적 연구의 주제별, 시대별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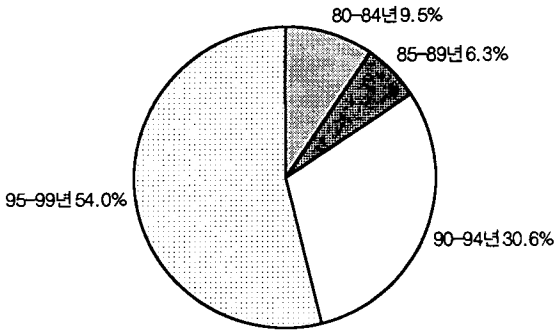
전체 논문편수 중 실천적 연구로 분류된 논문은 총 63편으로, 전체의 17.4%를 차지한다(<표 5>참고). 이들을 다시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80년대 전반에 발표된 연구 중 16.7%가 실천적 연구였고, 80년대 후반에는 10.3%. 90년대 전반에는 19.2%, 90년대 후반에는 18%가 실천적인 연구였다. 이렇게 본다면, 80년대 후반에만 다소 떨어질 뿐, 대체로 비슷한 정도로 실천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실용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의 위상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천적 연구들의 시대별 비율을 보면, <그림 1>와 같다. 다행히도 최근에 올수록 실천적 논문수가 증가하여, 전체의 54%가 90년대 후반에, 전체의 30%가 90년대 전반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표 5>에서 제시되었듯이, 최근의 실천적 논문의 증가는 전체 논문수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므로 이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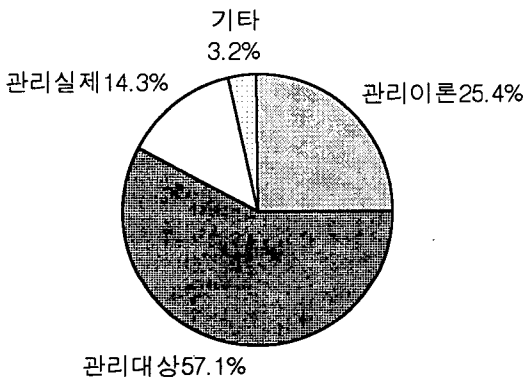
<표 5> 주제별, 시대별 실천적 논문편수

중분류	소분류	80~84	85~89	90~94	95~99	합계 (%)*
관리 이론	관리체계 및 과정	-	1 (12.5)	2 (9.1)	1 (4.2)	4 (6.9)
	가정생산 및 가족경제 생활의 질 및 만족도	-	-	1 (6.3)	1 (3.3)	2 (3.5)
	생활설계 및 실태	-	-	1 (33.3)	9(50.0)	10(43.5)
	소 계	-	1 (5.9)	4 (8.5)	11(12.2)	16 (9.3)
관리 대상	가 사 노 동	-	1 (9.0)	7(38.9)	8(25.0)	16(24.2)
	시 간 자 원	1(25.0)	-	7(29.2)	4(15.4)	12(20.7)
	가 정 기 기	5(55.6)	2(50.0)	-	-	7(38.9)
	여 가	-	-	-	1(10.0)	1(6.3)
소 계	6(33.3)	3(14.3)	14(29.2)	13(18.3)	36(22.8)	
관리 실제 (활용)	공 공 가 정	-	-	-	4(50.0)	4 (44.4)
	가정복지사	-	-	-	5(100.0)	5(100.0)
	가족기업 및 재택근무	-	-	-	-	-
소 계	-	-	-	9(42.9)	9(40.9)	
기 타	-	-	1(33.3)	1(14.3)	2(18.2)	
합 계		6(16.7)	4(10.3)	19(19.2)	34(18.0)	63(17.4)

\* ( ) 안의 비율은 <표 4>의 각 cell당 논문편수 중에서 차지하는 실천적 논문편수의 비율임.



(그림 1) 실천적 연구의 연도별 비율



(그림 2) 실천적 연구의 주제별 비율

관심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영역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실천적 연구에 가장 관심을 기울인 분야는 관리실제영역으로서, 이론을 직업분야에서 활용하는 영역이므로 실용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분야의 논문들은 자격증 제도화를 위한 탐색적이고 시도적인 연구들이 많아, 내용상으로 보면 관리의 이론과 절차를 개인 및 공공가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도화를 위한 연구와 더불어 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리대상영역에서의 실천적 연구가 많았다. 이것은 가사노동의 문제를 태도나 의식의 차원에서 보던 80년대의 경향에서 벗어나, 90년대 이

후에 자원의 활용과 가치의 차원에서 보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해결책, 사용된 자원의 가치와 대체재의 활용,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 정책과 같은 실제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관리이론영역에서는 주로 생활설계부분에서 실천적인 연구가 많았다. 이 분야 역시 90년대 후반에 관심이 높아졌고, 노년기나 실직가정 등 특정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 이들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생활을 설계하도록 하며 가정생활교육을 실시하려는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정도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부터 생활설계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작업은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예전부터 실시되어 왔어야 할 우리 학문의 역점분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분야 연구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의 부족이 현재 가족자원 관리학이 위기를 맞게 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므로, 이제라도 활성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 IV. 사회적 기여에 대한 평가

##### 1. 연구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가정관리론, 즉 시스템론을 도입해서 가정관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경향이 생겨나면서 외국의 이론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려는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되었고, 이것을 기초로 한 이론의 검증과 독자적인 이론들이 요구되었다(이기영, 1986, 15). 이에 따라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 여러 분야의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360여 편에 달하는 많은 논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이 연구들이 실제 가정의 관리상황을 개선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운영하여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할 것인가, 시간부족을 메우기 위해 나의 가정에 맞는 관리전략은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고교 교과서 이외에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실용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 그럴 수도 없다. 그러나 가정관리학이 실용적인 학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연구의 결과가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하며, 그 방법을 찾는 것도 연구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 2. 경험적 연구의 양산

같은 맥락에서, 실천적 연구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연구방법의 편중도 일조를 하였다. 가정관리학에서 사회조사방법 중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논문이 천편일률적으로 경험적 연구에 집중되었다. 일례로 한국가정관리학회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70%정도가 고급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거나 인과적 설명을 추구하는 논문이었다.

경험적 연구가 사회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의미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란 이론의 체계가 실제 자료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검증하거나,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험적 일반화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김경동 외, 1991)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학문의 경우에는 전자의 연구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연구대상이나 변인만을 달리한 수많은 연구결과와 나열이었을 뿐, 각각의 연구들이 쌓여 이론이 성립되고 그것의 정교화를 위해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그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의 주목적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 만큼(Bogdan & Taylor, 1975를 김경동 외, 1991에서 재인용), 가족자원관리학에서도 가정의 실태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나 기타의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특히 가족자원관리학 분야에서는 문헌연구의 대부분이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일 뿐 쟁점지향적 연구나 문제지향적인 연구가 부족한 만큼, 앞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3.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

가족자원관리분야는 이제까지 주로 일반가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왔기 때문에 가정이외의 사회나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타학문의 경우에는, 연구자로서의 교수들이 전공자의 진출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체나 사회기관과 접촉하여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특정한 진출분야나 훈련기관이 없어 현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으므로 사회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해주지 못하였고, 이것은 결국 학문의 위상문제나 전공자들에 대한 수요부족을 초래하였다. 다시 학문이 사회적인 변화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 4. 관련정책수립에의 영향력 부족

가족자원관리학이 사회의 직업적인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회의 흐름을 선도하는데 항상 뒤쳐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과 관련된 연구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주부의 가사노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부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분야 외에는 학문의 결과가 관련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적으며, 이 분야 역시 문제의 제기나 관련 연구결과와 축적에는 기여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책입안과정에서 가정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가사노동의 인정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기까지는 기타 사회과학의 노력이 컸으며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가정의 문제 발생시에, 예를 들어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평가를 통해 배상금을 산정하거나 재산분할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의 실질적인 뒷받침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가족자원관리학은 학문의 내용이 가정안에서 실천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고, 경험적 연구의 양산으로 인해 실

제로 가정의 문제를 파악하여 대처해줄 수 있는 연구도 부족하였다. 또 우리의 연구결과를 각종 기관에 제시하여 줌으로써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적극적으로 사회기관과 접촉하면서 주도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간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의 연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으며 누구를 위한 연구였는가를 반성하면서 미래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V. 미래를 향한 방향

### 1. 가정생활 관련 정보 및 교육 확대

우리는 이제까지 가정생활을 개선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을 소홀히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에 Extension기관이 부속되어 있어 가정학을 비롯한 농학, 생물학 등의 지식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가정학분야에서는 가족자원 관리는 물론이고 직업훈련, 법률상식, 연금 및 사회보험, 소기업경영, 여행, 장례에 이르기까지 가정생활에 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의 형성과정이나 가정학의 생성과정이 미국의 경우와 다르고, 연구자로서의 교수의 역할과 Extension Specialist의 역할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실용학문으로서의 가정학이 제 역할을 다하고 학문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현재 각 대학별로 정보센터나 상담소, 주부교육강좌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공방법에 앞서 우선은 교육내용이나 정보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학간의 연계나 학과의 중점사업화(예:가정교육과, 가정복지학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은 개인가정에 제공될 뿐 아니라, 전공자들의 진출분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복지사 등의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현장 이해를 통한 교육 내용의 강화

가족자원관리학은 개인 가정의 경영으로부터 영역을 확대하여 공공가정의 경영을 다루며, 가정복지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개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족기업이나 재택 근무자의 생활까지 다루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공공가정관리사나 가정복지사들이 가족자원관리학의 내용을 개인 및 공공가정에 활용하기에는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이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이제까지와 같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을 제공해주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내용은 물론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연구자들은 관련 기관과의 접촉을 통해 새로운 내용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는 현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부족한 분야이므로 초보적인 단계에서라도 가족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를 위한 강좌를 통해 기초적인 경영이론이나 시간관리전략 등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또 가정과 관련된 산업을 개발하거나 지원해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강좌는 재무이론이나 고객서비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실시될 수도 있다.

### 3. 연구 방법의 다양화 및 내용 강화

가족자원관리분야의 연구는 이제까지 양적인 면에서 많이 확대되어 왔으므로, 이제는 연구를 종합하고 다양화하는데 치중할 필요가 있다. 경험적 연구의 양산에서 지적하였듯이, 가족자원관리분야에서는 연구는 많았으나 진정

한 의미에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다. 따라서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을 재구성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문헌연구의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탐색적인 성격의 연구가 많아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시도나 정책적 제안 등이 실천적 연구를 대표할 뿐이었다. 따라서 변혁을 유도하기 위한 쟁점 지향적 연구나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 지향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서, 가정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정책수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VI. 결론

90년대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학과의 명칭변경이나 분과 움직임, 전공자의 진출분야 개척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자들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체 연구 중에서 실천적인 연구성고가 그리 많았다고는 보기 어렵고, 기타의 연구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족자원관리학 연구의 20년간의 성과를 주제별, 시대별로 분석함과 동시에, 이 연구결과들이 사회에 얼마나 반영되어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하였다. 또한 이 평가를 기초로 앞으로의 연구의 지향점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문의 영역과 분류가 전공자들간의 의견수렴없이 이루어진 점과 실천적 연구의 선별기준을 몇몇 전공자들의 논의만으로 결정한 점등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현재로서는 지난 20년간, 짧게는 변혁이 요구되었던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과가 하나의 구심점을 향해 제대로 결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앞

으로의 또 다른 20년을 위한 변화의 방향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학문의 목적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경동, 이은죽(1991), 사회조사연구방법, 박영사.  
 박명희(1999), 가정관리분야연구! 과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가?, 한국가정관리학회 26차 학술대회 자료집.  
 유영주, 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시론 1, 대한가정학회지, 34권 3호, 1-8.  
 이기영(1986), 가정관리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연구방향, 대한가정학회 8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18.  
 이기영 외(1993), 가정관리학과 교과모형 개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권 2호, 219-230.  
 임정빈 외(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황덕순 외(1995),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대한가정학회지 논문 내용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권 3호, 17-30.  
 8) 루스 디컨 외(1994), 가족자원관리, 한울.